



2005년을 글로벌 넷피아 원년으로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희망과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국어인터넷주소의 본격적인 세계진출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넷피아의 2004년을 돌아해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숨 돌릴 겨를조차 없이 분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넷피아가 쏟아 부은 혼신의 노력과 흘린 땀방울은 자국어인터넷주소에 대한 세계적인 인터넷 전문가들의 호평과 불가리아, 태국, 남미 등 세계 각국과의 MOU 체결 및 서비스 개시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9개국 서비스가 가능한 자국어인터넷주소는 나아가 UN과 ITU-T 세계 통신표준총회에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발표, 세계 표준화 추진을 제안 받았으며 최근에는 당시의 임원이 UN 산하 WGIG(Working Group on Internet Governance, 인터넷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임되기도 하는 등 세계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넷피아가 구상하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 세상을 위한 밑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



“
힘차게 전진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힘들었던 과거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껏 비상하겠습니다.
”



습니다. 세계 각 국에서 탄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넷피아의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세계 인터넷주소의 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차세대 인터넷 시장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넷피아가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을유년 새해, 넷피이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 상에 섰습니다. 올해로 창업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넷피이는 다가올 10년의 역사를 결정 짓는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넷피이는 2005년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한 열정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국어인터넷주소의 성공적인 세계시장 진입과 이를 통한 전 세계 정보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맹렬히 전진할 것입니다.

2005년에는 체계화된 경영시스템 아래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2005년을 글로벌 넷피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현장경영으로 일의 정확성과 진척 속도를 높이고, 사우회와 마라톤 동호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 내 문화활동을 증진시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북돋아줄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인터넷주소를 가지고 처음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했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일반인들은 도메인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 한글인터넷주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넷피아의 꿈은 현실이 되어, 현재 자국어인터넷주소는 국내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모델 삼아 전 세계 95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감으로 힘차게 전진했던 그때의 초심으로 힘들었던 과거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힘껏 비상하겠습니다.

넷피아의 자국어인터넷주소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고, 제 3세대 인터넷주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꿈은 반드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글로벌 넷피아’의 원년으로 삼은 2005년, 새로운 희망 속에 새 출발을 다짐하는 넷피이에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넷피아 이 판 정 대표이사

